



책나무, 아름다운 꽃으로

엄혁용 전북대 교수 전시회

조각가 엄혁용 전북대 교수의 작품관은 어릴 적 마당에서 보았던 '노티나무'와 잇닿아 있다. 엄 교수는 그의 성장기에 늘 함께하며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버팀목이 돼 준 나무를 향한 애정이 넘친다.

그에게 있어 '책은 곧 나무이고, 나무는 종이이고, 종이는 자연이고, 자연은 책'인 셈이다.

이를 근간으로, 엄혁용 작가는 지지와 완만본 등을 책으로 형상화 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다.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 고사목 역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작품에선 죽고, 병들고, 썩은 나무에 오방색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꽃을 띄워냈다. 작가는 "고사목에 숨을 주어 작품으로 재창시키고, 과정과 시간을 통해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킨다는 생각에 이 같은 작업을 펼치게 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죽은 줄이 아니라 누군가 또는 자연의 밀거름으로 작용, 새 생명의 삶으로 영속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인생관도 작품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리라는 것.

엄 작가는 "자신도 오랜 시간을 돌아 느지막이 대학 교수를 하게 되었고, 자식 같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면서 이번 고사목 작품 '책나무 꽃이 피다·피다'를 만개한 자신의 삶에 비유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 그리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도예과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조형미술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고사목을 작품으로 재생
직지 형상화 작업의 연장선
작가의 삶, 작품으로 비유
우진문화공간서 29일까지**

2014년 한국기초조형학회 과리 10개국 초대 작품전, 한국 미술상, 금령 미술상,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중앙미술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장으로 재임 중이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아리울스토리 시즌3 '해적' 폐막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시즌3 '해적'이 18일 폐막 공연을 끝으로 7개월여 간(총 154회)의 대장정을 마친다고 밝혔다.

2011년 첫 공연을 시작한 새만금 상설공연은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공연 상품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예술성과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 4월 11일부터 공연된 아리울스토리 시즌3 '해적'은 완성도 있는 무대와 알찬 부대행사로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명실상부 새만금 대표 문화예술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적'은 새만금 지역에 얽힌 신화와 풍어제 등의 문화 자원을 판타지 형식으로 재구성해 창작한 작품이다.

아리울(새만금)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용신족과 천신족의 대립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이 희망의 땅, 생명의 땅이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연출해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객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1천 8백여 명의 배려계층이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해 오는 11월 29일(완주 농촌진흥청), 12월 6일(부안 예술회관)에는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특별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 그리고 풍류'

다음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9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풍류도시' 두 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전주의 화려한 역사 속 풍류의 멋을 담은 '천년전주'와 혼돈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네의 인생을 표현한 '태풍의 눈' 그리고 화합과 통합을 주제로 한 '아리랑 판타지' 등 국악오케스트라로 웅장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 호소력 짙은 박승민 테너의 성악 협연곡 '강 건너 봄이 오듯', '내 영혼 바람 되어'가 서정적인 멜로디로 들려준다. 가곡은 국악기의 소리가 덧입혀져 색다른 테너의 매력을 전한다.

**다음국악관현악단 '풍류도시'
19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공연의 대미는 '풍류도시'가 장식한다. 이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이자 주제가 담긴 모듬북 협주곡, 모듬북의 화려한 테크닉과 퍼포밍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강성오 지휘자겸 예술감독은 "베틀머리 사공이 있어도 노를 저을 이가 없다면 그 배는 언젠가는 자초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국악관현악단은 함께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자 한다. 조금은 느리게, 때로는 거침없이 부단한 노력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대중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초행', 마르텔 플라타 영화제 국제경쟁 진출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작품 '초행'(감독 김대환)이 오는 1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32회 마르텔 플라타 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품이 동(同)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선정된 것은 2014년 '산다'(감독 박정범)에 이어 두 번째. '초행'은 동커커플 수련과 지현이 인천과 삼척에 있는 각자의 가족을 방문하는 두 갈래 여정을 다룬 이야기로 지난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신인경쟁

부문에 진출해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마르텔 플라타 국제영화제를 방문한다. 김 수석 프로그래머는 경쟁 부문 심사 외에도 '한국영화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현황과 전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초행'은 12월 7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문화장터 마련... 이달 말까지 도내 곳곳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문화장터'를 마련하고 나섰다.

'문화누리카드 문화장터'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모르거나 혹은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기 힘든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맹점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문화장터는 이달 말까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 17일에는 익산 부송동, 20~24일까지 5일 동안은 전주(평화2동, 인후1동, 효자3동, 서신동, 송천2동주민센터), 27·28일엔 김제, 29일에는 고창에서 만날 수 있다.

일반장터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공예품을 주로 판매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참하고 해당지역의 장터가 열리는 곳으로 가면 된다. 만 오천 원 이상 구매한 이용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선물도 선착순 증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완주군 이서면을 시작으로 10일과 13일에는 각각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에서, 15일엔 고창생활문화센터에서, 16일엔 익산에서 문화장터가 각각 열렸다.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문화장터에 찾아온 한 70대 수혜자는 "우리 같은 사람들(고연령층)은 책도 안보고 영화도 안봐서 이 카드를 어디에 써야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예쁜 물건들을 와서 팔아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